



'예열', 자동차 엔진 관리를 위한 습관

자동차도 추위를 탄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자동차 예열에 대해 '옛날에나 필요했다!' VS '그래도 필요하다!' 는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에 따르면 자동차 예열은 운동 전 준비운동과 같아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차를 위해서 30초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전처럼 5분 이상 긴 시간 동안 공회전시키는 것은 오히려 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저속 주행으로 예열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예열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 내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차량을 밤새도록 주차를 해 놓는 경우 엔진오일은 모두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이때 시동을 걸면 엔진 윗부분에는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 또 기온이 낮으면 오일이 굳어져 시동 직후 엔진 내의 각 부분으로 빠르게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예열을 통해 오일이 엔진 내로 잘 스며들어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간혹 빠르게 예열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고 엑셀을 밟아 예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예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과 공해만 일으키고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다.

■ 예열과 공회전은 다르다

공회전은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한 것을 이르며, 첫 시동 후 엔진오일을 적정 온도에 이르게 하고 엔진 내부에 순환시키는 예열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회전은 배기가스를 배출해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의 원인이 된다.

■ 제대로 된 예열 방법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는 엔진과 내부 부품 성능이 좋아, 공회전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차량 매뉴얼을 살펴보면 '엔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정차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 즉, 겨울철이라도 시동을 켜고 약 10~30초 정도 뒤에 주행을 시작하면 되고 적당한 속도로 일정 구간을 운전하면서 예열하면 된다. 또한, 이 때에는 급가속 또는 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종은 시동 직후 급격히 올라간 RPM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 예열 확인 방법

그럼 예열이 잘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1. RPM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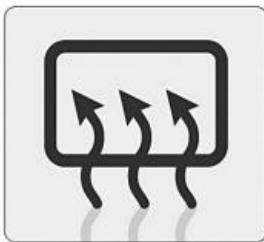
겨울철, 시동을 켜면 초기에 RPM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열이 충분히 됐다면 높았던 RPM이 낮아진다.

2. 에어컨 온도 확인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오토' 로 설정해보면 히터가 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속 주행을 하다 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다.



① RPM 확인



② 에어컨 온도 확인

3. 냉각수 계기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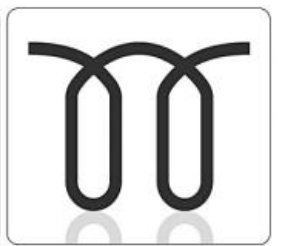
차량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 표시기에 눈금이 보이고 중간 정도에 눈금이 와있다면 예열이 충분히 되어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만약 눈금이 보이지 않거나 파란색으로 점등된 냉각수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다면 아직 충분히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다.

4. 예열 경고등 확인(디젤 차량)

디젤 차량의 경우 계기판에 돼지 꼬리 모양의 노란색 경고등이 있다. 이 돼지 꼬리 모양의 경고등은 엔진의 온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꺼진 후 주행하면 된다.



③ 냉각수 계기판 확인



④ 예열 경고등 확인

하지만, 요즘 디젤 차량의 경우 돼지 꼬리 경고등이 없는 차량도 있는데 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어 예열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후열도 예열만큼 중요!

예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후열이다. 후열이란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과정으로 주행 직후 엔진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냉각 장치의 작동이 멈추어 온도가 지속해서 올라가 엔진오일의 연소와 고착화를 유발하여 엔진 실린더의 내부 압력 저하, 밸브 밀폐력 저하 등 엔진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엔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 오일이 굳어 늘어붙으며 불순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후열은 꼭 해주는 것이 좋다.

후열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목적지 도착 약 3분 전부터 천천히 서행하면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다. 만약 저속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정차 후 시동을 바로 끄지 않고 30초에서 1분 내외로 후열해 주면 된다.



사람이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주행 전·후 예열을 하여 혹시 모를 사고와 고장에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꾼다면 내 차의 수명이 늘어난다. 차량 운행 전후로 내 차를 위한 30초의 여유를 가져보자.

▶ 사진 및 그래픽=삼성화재다이렉트

(lboon.kakao.com/sfdirect)



■ 제대로 된 예열 방법

- ① 시동을 걸고 약 10~30초 정도 뒤에 주행을 시작한다.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는 엔진 성능이 좋아져서 오래 예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주행 시작 후 저속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한다.
*급가속 및 급감속은 자양해주세요.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